



# 불과 신앙

불은 물질이 산소와 화합하여 연소하는 물리적 현상이지만 신앙적 믿음과 종교적 의례에서는 다양하게 상징화되어 문화적 암호로 쓰여 온지 오래다. 그래서 불은 인간사에서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구실을 해 왔으며 오늘날 현대인들이 누리고 있는 온갖 문명도 불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의 관념에서는 불에 대한 존엄성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종교·신앙적 측면에서는 이 불이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무속·민속·신앙에서 불에 대한 관념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불의 사용법도 옛 법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때만 온갖 문명·문물·기술·문화·신앙에서 불신(조왕신)이 어떠한 구실을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할 때 마을신으로 모셔지는 경우는 어떠한 것보다도 많다. 이 글에서는 조왕신(조왕)과 조왕등불부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한다.

## 조왕신과 불신

무속에서 조왕신(繼王)은 불을 관장하는 신으로 모셔지는데 지역 또는 신봉자에 따라 주왕, 주왕신, 조왕신, 불신, 부뚜막신, 화신(火神), 화덕장군(火德將軍), 화덕벼락장군, 화신장군(火神將軍), 조왕각시, 조왕할매, 조왕대감 등으로 호칭된다. 불은 인간 사회에서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에너지 요소이다. 인간 삶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하는데 불이 이를 가능케 한다. 음식 조리를 하는 곳은 부엌이다. 부엌은 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저장하기도 하는 이른바 음식물 창출 공간인 썸이다. 부엌 내에서도 불이 다루어지는 곳은 '아궁이'다. 그러므로 불은 부엌 그리고 아궁이와의 삼각관계에서 역할을 하게 된다.

위와 같이 불은 부엌을 지키는 왕신(王神)과의 불가분 관계에 있으므로 조왕신앙의 성격을 파악하는 일은 곧 불의 본질, 그리고 불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과 믿음을 알아보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 한편, 불이 다루어지는 아궁이는 불을 지피는 곳이지만 동시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씨를 보관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전통사회에서는 아궁이 불씨 지키는 일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졌다.



시집 온 며느리는 시어머니로부터 불씨 지키는 일을 넘겨받아 죽을힘을 다하도록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그렇지 못하고 불씨를 꺼뜨리거나도 하게 되면 조왕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집안이 망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불씨 못 지킨 며느리는 시집에서 쫓겨나는 일까지도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각 가정마다 불 지키기 전통을 더듬어 보면 이는 결국 고대사회의 불씨송배에서부터 그 역사를 더듬어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40)</sup> 불씨송배는 곧 생식(生食)에서 화식(火食)으로의 전환에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다 준 신앙이라 할 수 있다.

손진태 선생이 채록한 함경도 무가 창세가에 보면 미륵님이 생쥐를 통해 불 없이 생식을 하던 사람들에게 불의 근본을 알려주고 있다. 먼 옛날에는 불 없이 생식으로 삶을 이어왔던 것이다. 그래서 미륵님이 인간들에게 불과 물의 근본을 알려주고 생쥐를 잡아 형틀에 올려놓고 무릎을 때리면서 물과 불의 근본을 물었다. 생쥐가 대가를 요구 하자 미륵님은 생쥐로 하여금 천하의 뒤주를 차지하게 하였다. 그러자 생쥐는 금명산(쇠산)에 들어가 차돌과 시우 쇠를 툭툭 쳐서 불을 냈으며, 이로써 사람들이 불을 이용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여러 지역의 무속의례에서 불리지는 신가(神歌)에 불신이 등장한다. 예컨대 경남지역이나 제주지역 신가에 수인(燧人)이 나오는데 이는 사람들에게 불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이른바 불신이다. 경기도 연천의 호사곶에서는 불씨(부살)를 모시는 곳거리가 있다. 이 곳에서는 불신을 모시고 놀리어 불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집 안에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부살거리에서는 종지기에 재와 세 개의 불씨를 담아 들고 곶을 한다. 신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1) 신영수, “불과 조왕신앙” [불의 민속] 국립민속박물관 1996, 187쪽  
주2) 양중승, ‘연천무가’ [연천군지] 연천군지편찬위원회 2000, 933-935쪽

“오랴 불이야 오랴 불이야 천하부살 천하부살 천불지불  
천불지불 부살할머니 부살할머니 받으실 때 받으실 때 나  
라대주에 나라대주에 몸주불 몸주불 계주에 계주에 직성  
불 직성불 자손나비들 자손나비들 수명불 수명불 부살화살 부살화살  
놀고날 제 놀고날 제 받아들어 받아들어 안당으로 안당으로 지석(제  
석) 불 지석불 대청으로 대청으로 성주불 성주불 장광으로 장광으로  
칠성불 칠성불 오방지신 오방지신 주왕불 주왕불 팔만지신 팔만지신  
지신불 지신불 나라대주 나라대주 담배 불 담배 불 부살화살 부살화살  
놀고날 제 놀고날 제 불쭈(뒷간의 밭 디딤돌)불 불쭈불 이 고량산 이  
고량산 본향불 본향불 오락가락 오락가락 왕래불 왕래불 부살화살 부  
살화살 부살할머니 부살할머니 놀고 나서 놀고 나서 천불지불 천불지  
불 부살영정 부살영정 쫓아내고 쫓아내고 명불복불 명불복불 놀고 납  
시다 놀고 납시다 얼씨구”<sup>42)</sup>

위와 같이 잦은 만세반이로 신가를 부른 후 종지기의 불씨를 담아 들고 춤을 춘다. 불씨 그릇을 위아래로 돌려 그릇에 담긴 재와 불씨가 떨어지지 않도록 영험을 보인 후 다음과 같이 공수를 내린다.

“오냐 천불 아니시랴 만불 아니시랴 부살화살 부살할머니 놀고 날



적에 대정으로 성주부살 오방 가신에 주왕불 팔만지신에 지신불 아니시랴 오냐 대주몸주 계주들 지성불 남녀자손에 수명불 아니시랴 오냐 뒷간불이 무섭다 주왕불이 무섭다 불조심해라 명불복불 놀고 나자”

한편, 무속신앙에서 모셔지는 불신은 대체로 남성신으로 나타나 보인다. 건장한 성인 남자가 양손에 쇠붙이로 된 둥그런 시우쇠를 들고 있는데 쇠붙이에서 화염문의 불꽃이 강하게 표현된다. 그리고 남성신은 광명을 뜻하는 붉은 옷으로 치장하고 있다. 화염문으로 표현된 불꽃들은 신령 주의 여러 곳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다. 신령 양손에 쥐어진 시우쇠는 불을 내게 하는 일종의 불 창출을 위한 신구(神具)이다. 불신이 함께하고 있는 불꽃 모양의 화염문(火焰文)은 무신 그림의 광배에 사용되어진다. 비범하거나 신성한 존재를 표현하거나 상서로운 구역을 나타내는 기운 그리고 그 기를 표현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화염문의 예는 고대벽화나 불교문화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불교에서는 화염문을 연꽃문양으로 나타내어 생명의 탄생이나 광명 또는 절대자를 암시토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불신에서 불을 표현하기 위해 화염문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결국 불신의 절대적인 영험력의 소유자로서 갖고 있는 광명과 생명력을 암시하기 위한 것이다.

무속의례에서의 불은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력의 기능을 갖고 있다. 의례를 통한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의 전환이란 곧 부정됨을 거쳐 청정한 공간으로의 탈바꿈을 말한다. 이는 소지(燒紙)를 통해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사악한 것, 부패한 것, 냄새나는 것 등

을 모두 태워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재”로 표현된다. 재는 “무”를 뜻하며 이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의 알립이다. 이로써 불을 통한 파괴 현상은 벽사성과 제액초복의 기능을 갖는 것이며 새로운 창조성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무속의례에 보이는 불의 정화력은 유형적인 물질을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적인 비물질 그리고 인간의 정신적인 것도 대상으로 삼는다. 그래서 굿 시작에 앞서 올려지는 소지는 굿청 내부의 부정을 가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고 동시에 그 뜻을 하늘에 전달하여 고하고자 함이다. 소지올림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향불과 촛불 피우기도 결국은 인간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이고 또한 불을 밝혀 신령과 같은 공간에 있음을 암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촛불을 피워 천지를 밝힘으로써 영적인 존재의 세상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한 향을 피워 좋지 못한 사악한 것을 모두 사라 버리기 위함인 것이다. 이는 정화된 의례공간에서의 향불과 촛불은 곧 신령의 강림을 뜻하기 때문이다.



## 불과 마을신

불은 마을의 수호신이 모셔질 때에도 매개가 되어졌다. 서울 마포에 있었던 금성당은 조선시대 비운의 운명을 맞이한 단종의 숙부 금성대군(錦城大君, 1426-1457)을 주신으로 모셨던 곳이다. 도시 개발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지만 이곳의 금성당은 한때 지역민들과 유명 만신들로부터 추앙받았던 성스러운 신당이었다. 금성당이 조성되어질 때 한강변 망원동에 궤짝이 떠내려 왔는데 두 명의 사공이 궤짝을 발견하여 한강변 모래사장으로 끌어 올렸다. 끌어올린 궤짝이 저절로 열리면서 마을 전체에 불빛을 발하였고 마을 사람들이 이를 귀이하게 여겨 신이라 생각하고 마을에 금성당을 짓게 된 것이다.<sup>3)</sup>



## 조왕그릇

조왕신 모시기는 전통사회 속에서 일상화되어 있었다. 가족 구성원이 먼 여행에서 돌아오거나 문상을 갔다 귀가하면 맨 먼저 조왕신이 계시는 부엌에 들러 나오게 하여 신체를 정화시켰다. 이는 조왕신이 정화력을 갖고 있는 신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부엌 부뚜막에 종지나 단지에 정화수를 담아 올려 놓고 조왕신을 모셨는데 이를 '조왕그릇'이라고 불렀다. 매일 아침 일찍 부엌문을 처음 여는 사람은 조왕그릇에 새로운 물로 갈아 바치면서 깊은 정성을 드리고 가정이 평화롭고 잘 되기를 기원하곤 하였다. 조왕신이 물로 상징화된 것은 부엌을 지키는 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즉 조왕신이 계시는 부엌은 음식조리 공간이다.

이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이다. 그래서 물은 조왕신을 상징하는 또 다른 요소로서 그 의미가 부여된다. 따라서 조왕신이 계시는 부엌은 음식을 생산함으로써 삶에 있어서 생산성, 풍요성 그리고 신성성을 상징하는 신앙 공간으로 기능한다.

## 조왕동토부

조왕신은 삶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조왕신을 각별히 모시면서 때를 맞이하여 무속의례를 베풀어 대접하곤 한다. 그러면서 평상시에는 조왕신이 노하지 않도록 부엌문 안쪽 또는 부뚜막 벽면에 조왕동토부(籠王動土符)를 붙여둔다. 이는 조왕신이 발동하지 않고 좌정하여 잘 계시기를 바라는 뜻이다. 그러나 살다보면 건드려서는 안 될 부엌 구조를 변경한다던지 아궁이를 고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이 불과 물을 잘 다루지 못하여 조왕이 동티가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신이 존재하는 기존 공간의 질서가 깨지거나 그 사이 좋지 못한 사악한 기운이 침범함으로써 생기는 것으로 믿는다. 또한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불과 물에 대한 존엄성을 짓밟는에서 생긴 것이다. 동티는 곧 조왕신이 노함으로써 신별이 내려져 뜻하지 아니하게 불행한 번고가 일어남을 말한다. 조왕 동티가 심하게 나면 가족 구성원이 무서운 질병에 걸리게 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조왕 동티가 나지 않게 늘 신경을 써야 하며 그 방편으로써 조왕부를 붙여두는 것이다. ㉞

주3) 양중승 "서울 무속과 금성당(錦城堂)의 실체" [생활문화연구] 2004, 15: 56-82쪽

